이베로아메리카 제12권 2호 [2010. 12] : 357~381

프란씨스꼬 로뻬쓰 데 고마라의 연대기에 나타난 인디오의 이미지 연구

최 권 준*
(Choi, Kwon-Jun)

〈Abstract〉

Las imágenes de los indios aparecidas en la crónica de Francisco López de Gómara

Las imágenes de los indios aparecidas en la crónica de Francisco López de Gómara son muy varias. En la parte de religión, Francisco López, un clérigo católico, absurdamente muestra los puntos de vista muy sepersticiosos. Para hablar de la superioridad de catolicismo López pone énfasis en lo que los dioses de los indios son sólo diablos e ídolos, y presenta, a través de unos episodios relacionados con los milagros religiosos, las historias de que cómo los indios aceptan el catolicismo.

En la parte de socio-economía, primero respecto a la riqueza material, aunque no podemos saber de dónde López sacó los detalles, él menciona a menudo con las cifras concretas, y éstas son muy exageradas. Los indios de López se muestran como personas que ofrecen gratuitamente las comidas y las casas a los españoles y andan sumisamente por las calles. A pesar de estas figuras sumisas

* 대구가톨릭대학교 스페인어과
E-mail: aguilaliberal@hanmail.net

los indios se rebelan y matan a veces a los españoles por las comportas crueles de éstos. Podemos ver en la crónica de Lépez varios aspectos en cuanto a la naturaleza y a los costumbres diarios de los indios, entre éstos también se encuentran unos episodios muy curiosos. Respecto a la medicina los indios se aprovechan de las materias herbolarias y usan ciertas medidas científicas.

En la parte de política, los poderes de caciques o reyes aparecidos en la obra de López tienen las figuras del poder absoluto. Pero como podemos ver en la historia de las beheterías de Nicaragua, también existe un sistema democrático. Al ver con el punto de vista del orden social, en muy buena parte de esas regiones el delito más grave es robar. Por lo tanto en la Española? condenan a los ladrones a muerte. Y, aparte de mantener un sistema muy eficaz que puede facilitar a los habitantes en seguir las órdenes legales, los procesos de juicio son muy razonables.

En la parte de cultura, López relativamente no comenta mucho en cuanto a los vestidos, pero sí las comidas. Entre éstas lo más importante es sin duda maíz. En este grado él cita una palabra dicha por los españoles “con maíz y ají están gordes los hombres y los caballos”. Aunque no comenta mucho sobre las casas, López se sorprende a veces de las fortalezas fuertes y de los caminos fantá sticos construidos por los incas sin tener polea y grúa. Entre muchas culturas mencionadas se destacan las danzas, las canciones, los quipus y los amates. En otra parte, las utopías presentadas por Ló pez generalmente están relacionadas con el Reino de Mujeres de Marco Polo.

[Key Words: Imágenes de Los Indios/ Crónica/ Hispanoamérica/ Francisco López de Gómara]
[주제어: 인디오 이미지/ 연대기/ 중남미/ 프란씨스꼬 로뻬쓰 데 고마라]

Ⅰ. 들어가는 말

끄리스또발 꼴론(Cristóbal Colón)이[1] 아메리카 대륙에 들어간 이후 16세기 내내 아메리카 대륙과 관련한 다양한 글이 작성되었다. 당시 글을 남긴 인물들은 정복자나 사제, 역사가, 정복사업과 관련된 인물, 단순한 호기심에서 기록을 남긴 사람이었는데 이들이 남긴 글의 대부분은 보고서나 서한 혹은 연대기 등이었다.[2] 그리고 이들은 자신의 글에 직접 목격하거나 들은 것뿐만이 아니라 상상에 의한 것이라 볼 수밖에 없는 이야기들도 기록하였다. 심지어 정복 원정대의 책임자들도 사건과 관련한 것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환상적인 이야기까지 말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글에는 원주민과 관련한 사실적인 모습뿐만이 아니라 왜곡된 모습도 그려져 있다. 왜곡된 모습은 작가들에 의해 의도적으로 그렇게 묘사된 것이 다수이지만 때론 작가들의 무지와 그들의 상상에 기인한 것이기도 하다. 이미 많은 세월이 흐른 뒤이고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희박하지만 여하튼 당시의 글에 기록된 인디오와 그들과 관련된 이미지들을 살펴봄은 오늘날의 중남미를 이해하는 한 중요한 기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본다.[3]

---

1) 크리스토프 콜럼버스는 스페인어로 끄리스또발 꼴론이라고 읽는다. 이하 본 논고에서는 나라 이름을 제외한 고유명사의 우리말 표기는 스페인어 발음을 기준으로 한다.

2) 언급한 다양한 형태의 글들을 일반적으로 연대기란 말로 통칭하기도 하므로 본 논고에서도 연대기란 말로 대표하고자 한다.

3) 부연하자면, 본 논고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16세기 당시 인디오들의 사실적인 모습이 아니라 기록자의 글에 남겨진 이미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즉 당시 아메리카 대륙과 관련한 글을 남긴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복자인 스페인들이었고 이들의 글에 남겨진 인디오들의 이미지는 사실적인 모습을 그대로 그린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들의 눈에 비쳐진 이미지들이다. 따라서 사실여부를 떠나 그들의 눈에 비쳐진 이미지를 살펴보는 것이 본 논고의 주된 관심이다.

본 논고에서는 16세기에 유럽인들에 의해 기록된 수많은 중남미 연대기들 가운데 정복에는 직접 참여하지 않았지만 에르난 꼬르떼스(Hernán Cortés)의 전속사제로 중남미에 관한 흥미로운 작품을 남긴 프란씨스꼬 로뻬쓰 데 고마라(Francisco López de Gómara)가 작성한 『인디아스 역사 *Historia general de las Indias*』를 연구대상 작품으로 선정하였다.[4]

프란씨스꼬 로뻬쓰 데 고마라는 비록 한 번도 아메리카 대륙에 가보지 못했지만 매우 다양한 이야기들을 자신의 글에 남기고 있으며, 그 내용이 흥미로워 16세기 당시에 이미 여러 나라에서 번역되어 출판될 정도로 작품은 인기가 있었다. 즉 로뻬쓰는 직접 목격한 작가가 아니기 때문에 다소 황당한 이야기도 기술하고 있지만 인문학적인 지식에 있어서는 당시에 신대륙과 관련한 글을 남긴 그 어느 작가에도 뒤지지 않았으며,[5]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그의 책에는 오히려 더 다양한 이야기들이 폭넓게 전개되어 있다.

Ⅱ. 연대기에 나타난 인디오의 이미지

프란씨스꼬 로뻬쓰 데 고마라의 연대기에 등장하는 인디오와 그들과 관련한 것들의 다양한 이미지를 연구함에 있어서 나름의 통일성과 체계를 갖추어 비교·분석하기 위해 본 논고에서는 이들을 몇 개의 분야로 분류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논고에서는 이들을 종교, 경제·사회, 정치, 문화로 구분하였다.[6]

---

4) 본 논고의 분석대상 텍스트는 Francisco López de Gómara(2006)을 참조하였다. 이하 작품과 관련된 인용은 괄호 속에 쪽수만 표기하기로 한다. 작가나 작품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최권준(2008)을 참조.

5) Ibid., pp. 322-324. 참조.

6) 정치, 경제, 사회, 문화로 구분함이 일반적인 것이겠지만 본 논고에서는 종교와 관

종교 분야에 포함시킬 수 있는 이미지들에는 스페인인들이 가지고 들어간 가톨릭에 대한 인디오들의 수용과 반발, 인디오들의 토착 종교에 대한 생각 혹은 그들의 신화나 전설 등이 있을 것이다. 경제·사회에는 물질적인 부와 관련한 것과 인디오들의 전투능력과 관련한 것, 외지인들에 대한 태도, 그들 내부에서의 화합적인 모습이나 배신자적인 모습, 사회적 관습과 관련한 것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정치 분야에는 인디오들의 정치적 계급질서, 사회 통치적 질서, 부족들 사이의 관계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문화에는 의식주를 기반으로 한 일상적인 생활문화와 인디오들의 신전과 건축물, 이상향에 대한 생각, 문명 등 매우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 있다.

1. 종교

가톨릭 사제인 프란씨스꼬 로뻬쓰 데 고마라의 원주민들의 종교에 대한 시각은 역설적으로 매우 미신적이다. 로뻬쓰는 기독교의 우월성을 강조하기 위해 원주민들이 믿고 있는 신들은 모두 악마이며 우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하는데 모순적이게도 원주민들의 예언이나 기도 혹은 점치는 능력을 통해 증명하려고 한다. 스페인 병사들이 아직 그 땅에 나타나기 전 구아리오넥스(Guarionex)라 불리는 한 족장의 아버지가 사제들을 통해 신들에게 부족의 미래에 대해 물어보았다고 한다. 사제들은 5일 기도 후 이에 대한 대답을 하였다. 그런데 이 원주민들의 신들은 사악한 악마들이어서 미래의 일을 숨기고자 하였지만 사제들은 좋은 종교인들이어서 사실 그대로 말했다(70)고 한다.[7] 이 사제들에 의하면 긴 수염에

련한 글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별도의 분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경제와 관련한 분야는 독립된 한 분야로 살펴보기에는 상대적으로 미미하게 언급되어 있어 사회 분야와 함께 살펴보았다.

7) 이 말은 그 자체로 모순되는 표현이다. 신들이 사악하여 숨기려고 했는데 사제들

옷을 입은 사람들이 와서 번쩍이는 칼로 단 번에 사람들을 두 동강 낼 것이며 그 땅의 신들을 폐지할 것이라는 것이다.(70) 이 이야기를 들은 원주민들이 아레이또(areito)[8]라는 것의 노랫말로 만들어 축제에서 불렀는데 후손들의 피를 뽑아내고 노예로 만들 것이라는 내용이었다.(70) 로뻬쓰는 원주민들의 노랫말 내용 그대로 모든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다(71)고 강조한다. 왜냐하면 수많은 인디오들이 스페인인들에 의해 죽고 자살하여 에스빠뇰라(Española)에서만 150만의 인구가 있었는데 글을 쓰는 당시 500명도 채 남지 않았기 때문이라(71)고 한다.[9]

부께부까(Buquebuca)란 한 족장은 스페인인들이 온다는 소식에 처음에 도망을 갔다 나중에 찾아와서 도망간 이유가 하늘의 사람들을 대접할 변변한 것이 없어 부끄러워 그랬다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인사하러 왔다."고 했다(123)고 한다. 로뻬쓰에 의하면 인디오들은 가톨릭 사제들의 설교를 쉽게 받아들이고 감동적으로 가톨릭에 빠져들었는데 그들이 십자가를 숭배하며 아베 마리아를 찬양하고 무릎으로 기어 계단을 올라 예찬하는 것을 보면 커다란 경외심을 느낀다(350)고 말한다. 또한 성모 마리아가 쿠바의 대 족장에게는 여러 번 발현하였고 또 다른 여러 인디오들에게도 발현하였으며,(96) 심지어 꼴론이 남겨둔 나무 십자가가 신앙심 많은 병자들을 낫게 해 인디오들이 이를 유물로 여기기도 한다(71)고 한다. 로뻬쓰는 까베싸 데 바까(Cabeza de Vaca)의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스페인인들이 기도와 성호를 긋고 바람을 콧구멍에 불어넣어 인디오

이 이를 어떻게 알 수 있었으며, 설령 알 수 있었더라도 자신들이 모시는 신들이 알리지 말 것을 명령했는데 이를 알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일 것이다.

8) 춤과 음악이 혼용되어 있는 가무의 일종.

9) 로뻬쓰가 의도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바로 이러한 말들을 통해 우리는 스페인 정복자들의 잔혹성에 대해 알 수 있다. 또한 이런 내용들 때문에 펠리뻬 2세가 출판된 다음 해에 금서로 지정하였을 것이다. 글을 쓰는 당시 500명도 채 남지 않았다는 말은 라스 까사스(Las Casas) 신부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Bartolomé de las Casas(2006), pp. 18-24. 참조.

들을 치료한 것을 사실로 받아들인다.(87)

로뻬쓰는 종교적 기적과 관련한 흥미 있는 일화도 두어 개 소개한다. 기독교를 의심한 까오나우(Caonau) 계곡의 한 족장이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던 자신의 부인과 같이 잠자리를 했는데 갑자기 벙어리가 되고 사지가 마비되었다. 이를 본 원주민들이 기적으로 여기게 되고 결국 그 족장은 성당지기가 되었다는 것이다.(72) 다른 일화는, 어느 천둥번개가 몰아치던 날 이를 피해 네 명의 인디오가 한 동굴로 피신했다가 세 명이 번개를 맞아 죽은 이야기이다. 이 일에 대해 황당하게도 살아남은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 무사했지만 나머지 세 명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 번개를 맞아 죽었다고 설명하고 있다.(72)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로뻬쓰에게 종교란 가톨릭이며 원주민들이 믿는 어떠한 신도 모두 우상일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원주민들에게 기독교를 전하고 개종시키는 것은 스페인인들의 의무이고 권리인데 그 근거는 로마 교황 알렉산더 6세가 교서로써 정복과 개종을 허락한 사실이다.(50~51)

2. 경제·사회

물질적 부유함에 대해 로뻬쓰는 어디서 본 자료에 근거하는지는 몰라도 때때로 구체적인 수치로 언급한다.[10] 예를 들어, 꼴론을 체포하여 본국으로 송환했던 인물인 프란씨스꼬 데 보바디야(Francisco de Bobadilla)가 에스빠뇰라를 통치할 때 그는 본국의 두 왕에게 10만 뻬소(peso) 이상의 금을 실어 보냈는데 이 가운데에는 여왕에게 바칠 15킬로그램 정도

10) 로뻬쓰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분야에서 구체적인 숫자를 사용하는데 이는 그가 한 번도 인디아스에 가보지 못한 사실을 보완하기 위함일 것이다. 보다 자세한 것은 최권준(2008)을 참조.

나가는 금 알맹이가 하나 있었다(69)고 한다.[11] 그러나 불행하게도 나쁜 날씨 때문에 배가 침몰하여 다른 모든 것들과 함께 이 금 알맹이도 분실하고 말았다. 물론 금과 관련하여 가장 놀라운 부를 가지고 있었던 부족은 잉까인들이었다. 아따우알빠(Atahualpa)가 풀려나기 위해 꼬르떼스에게 바친 금들 가운데는 그릇 하나가 무려 8아로바(arroba) 나가는 것도 있었다(212)고 로뻬쓰는 기술하고 있다. 1아로바가 대략 11킬로그램이 조금 넘으니 88킬로그램이 넘는 금으로 된 그릇을 의미한다. 물질적인 부에 대한 로뻬쓰의 기술이 사실인지 아닌지 알 수 없지만 잉까(Inca) 지역에서는 사람몸통만한 무가 자라며 양은 한꺼번에 5마리의 새끼를 낳을 정도로 비옥하다(342)고 기술하고 있다. 그리고 그의 이 놀라운 것들에 대한 기록은 사람들과 관련하여서도 마찬가지다. 빨마스(Palmas)강 유역의 사람들은 하루 종일을 쉬지 않고 뛸 수 있고(86) 심지어 하얀(jayán)들은 사슴보다 더 빨리 뛰어 사슴을 손으로 잡는다.(166) 산 아구스띤(San Agustín)곶의 사람들은 독일인보다 덩치가 더 크고 발의 크기가 한 배 반에 이르며,(160) 마가야네스(Magallanes)는 거인 가족을 발견하였는데 얼마나 크고 힘이 센지 스페인 병사 여덟 명이 한 명을 제압하기 힘들었다.(171) 이들의 평균 키는 11에서 13뼘 크기이며 특히 발이 이상하고 크게 생겨 이들을 빠따곤(patagón)이라 부른다(171)고 한다. 또한 잉까인들은 100세 이상 살며(342) 하얀은 150년을 산다고 강조한다.(166)

---

11) 로뻬쓰가 의도하였는지 아닌지 알 수 없지만 그는 때때로 스페인 병사들의 탐욕을 비웃는 이야기를 기술한다. 한 예로, 꼬마그레(Comagre) 지역 족장의 아들 빠끼아꼬(Paquiaco)는 스페인인들이 금 때문에 서로 싸우고 원주민들을 죽이는 등 갖은 추악한 짓을 저지르는 것을 보고 "하찮은 것 때문에 싸우고, 훌륭한 공예품들을 분배하기 위해 녹이며, 가까운 친구들끼리도 싸우다니. 당신들이 상스럽고 야만적이라고 말한 이 땅에서까지 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싸우고 심지어 그것 때문에 죽이고 하니 물리도록 금이 많은 땅을 보여주겠다."라고 스페인인들을 꾸짖었다.(113) 그리고 로뻬쓰는 스페인인들이 황달에 걸려 노래지는 이유가 금을 좋아해서 그렇다고 비아냥거리기도 한다.(129)

그리고 빨마스강 유역 인디오들의 활은 덩치에 맞게 얼마나 큰지 화살의 길이가 12뼘에 이르며 굵기는 팔뚝만하고 날아가는 거리는 200보에 이른다.(86) 또한 꾸마나(Cumaná) 지역의 박쥐는 얼마나 큰지 한 번은 한 아이의 피를 모두 빨아 죽이는 일도 있었다.(151)

로뻬쓰의 책에 등장하는 인디오들은 약한 모습과 강한 모습을 동시에 보인다. 바로 앞에서 보았듯이 어떤 부족들은 야생의 사슴과 달려서도 뒤지지 않고 하루 종일을 달려도 지치지 않으며 머리가 얼마나 단단한지 몽둥이를 깰 정도이고(132) 또 다른 부족들은 키가 2미터가 넘는 거인들로 묘사된다.(80, 160, 171) 그러나 이들도 결국 모두 스페인 병사들에게 손쉽게 포획되는 허약한 원주민들에 불과했다. 로뻬쓰가 가끔 언급한 인디오들의 강인한 모습은 과장이거나 허황된 이야기일 뿐일 수도 있다. 그러나 베르날 디아쓰 델 까스띠요(Bernal Díaz del Castillo) 조차 거인의 뼈를 발견하여 본국의 왕실에 보낸 일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으니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는 말할 수 없다. 여하튼 그런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로뻬쓰가 묘사하는 인디오들은 대체적으로 스페인 병사들에게 먹을 것을 공짜로 주고 거주할 수 있도록 집도 지어주며 노예처럼 온순하게 다니는 모습이 보통이다. 다른 한편으로, 초기 유까딴에서 발견한 곤쌀로 게레로(Gonzalo Guerrero)가 그동안 같이 살던 원주민들과 살기 위해 꼬르떼스와 같이 떠날 것을 거부하며 나타나지 않았다(99)는 이야기와 꼬이바(Coiba)란 지역에 잡혀 살았던 스페인인 세 명도 원주민들이 잘해주었다(112)고 보고하는 이야기에서 우리는 원주민들의 본래의 모습을 추측해볼 수 있다.

다만 이렇게 순종적임에도 불구하고 스페인 병사들의 너무나 가혹하고 잔혹한 혹사에 못 이겨 때론 반란을 일으키고 스페인인들을 죽이는 모습도 보인다. 꼴론이 에스빠뇰라에 남겨두고 떠난 39명의 선원들이 강

간과 난폭한 행위 등 갖은 횡포를 저지르자 구아까나가리(Guacanagari) 족장이 이들을 모두 죽였으며,(55) 꾸마나의 원주민들은 스페인인들이 가하는 강제노동과 진주 채취의 힘든 작업에 견디지 못하고 1519년 반란을 일으켜 스페인인 100명을 죽이고 수도원에 있던 사제들도 죽였다.(146) 또한 빠나마(Panamá)[12] 지역의 족장 빠리스(París)는 스페인 병사들이 금을 빼앗기 위해 너무나 잔혹한 일들을 저지르고 도망가자 이들을 추격하여 80명을 죽이고 금을 도로 빼앗기도 하였다.(344) 그리고 아마도 가장 큰 반란 중 하나는 1536년 꾸쓰꼬(Cuzco)에서 일으킨 것일 것이다. 삐싸로(Pizarro)가 보낸 병사들과의 몇 번의 전투에서 무려 400명의 병사들과 말 200필을 죽였다(237~8)고 한다.[13] 그러나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원주민들의 전투력은 형편없었다. 예를 들자면, 잉까 지역이 매우 혼란하던 시기 본국 왕의 명령으로 그 지역을 통치하러 갔던 뻬드로 데 가스까(Pedro de Gasca)가 1542년 본국에서 발효된 신법을 적용하면서 원주민들의 강제노동을 금지시켰지만 그래도 지속되자 가스까는 그럼 다른 일은 차치하고 최소한 인디오들을 다른 곳으로 강제로 이주시키는 것은 그만 둘 것을 명령했는데 이는 약한 인디오들이 거주지를 옮기면 적응하지 못하고 쉽게 죽어버렸기 때문이었다.(330)

한편으로 로뻬쓰는 원주민들과 관련한 다양한 것들을 이야기하다 갑자기 전혀 상황에 맞지 않는 근거 없는 욕설들을 퍼붓는다. 한 예로 그들의 풍습에 대해 이야기하다 갑자기 거짓말쟁이, 허풍쟁이, 게으름뱅이, 남색자, 배은망덕하다고 늘어놓는다.(101)[14] 인디오들의 배신자적 모습

12) 지금의 파나마 국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빠나마로 표기하며 이하 동일한 경우 같은 원칙을 적용함.

13) 디아쓰의 책이 금서로 지정된 원인에 대해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그는 원주민들이 반란을 일으키거나 스페인인들을 살해한 이유가 스페인인들의 만행에 기인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14) 뿐만 아니라 로뻬쓰는 스페인인들의 악행에 대해서도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

과 관련하여서도 마찬가지이다. 로뻬쓰가 말하는 이러한 이미지는 근거가 없다. 지금의 콜롬비아 북쪽에 위치한 띠리삐(Tiripi)란 지역에서 알론소 데 오헤다(Alonso de Hojeda)는 몇 번의 전투에서 실패하고 주변을 돌아다니던 중 한 인디오 여인을 포로로 잡게 된다. 그러자 이 여자의 남편이 나타나 몸값으로 다음날 금을 가져오겠다고 약속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 인디오는 약속을 어기고 다음날 다른 8명의 동료들과 나타나 갑자기 공격했다(107)고 로뻬쓰는 비난한다. 그리고 발보아(Balboa)가 남쪽 바다를 발견하기 직전 아비베이바(Abibeiba)강 근처에서 주변의 몇몇 원주민 족장들이 공모하여 그를 죽이기로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이 음모는 실행에 옮기기 전 발각되었다. 이유는 발보아가 데리고 있던 원주민 여인들 가운데 한 아름다운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의 오빠가 그녀를 보기 위해 자주 방문하였고, 그는 쎄마꼬(Cemaco)란 족장의 부하로서 음모를 잘 알고 있었기에 이 사실을 여동생에게 말해주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발보아를 너무나 사랑해서 그리고 자신에게 잘해주었기 때문에 그만 이를 그에게 밀고했던 것이라(116)고 한다.

이러한 밀고와 관련한 로뻬쓰의 글 가운데 가장 황당한 것은 아따우알빠를 처형하게 된 밀고사건이다. 몸값으로 막대한 금을 삐싸로에게 주고도 아따우알빠는 결국 처형되고 말았는데 그 이유는 너무나 황당하게도 원주민 통역 필리삐요(Filipillo)란 인물이 아따우알빠의 부인들 가운데 한 여인을 사랑한 나머지 그가 반란을 일으킬 계획이라고 고발하였기 때문이었다.(217) 그러나 이 밀고 때문에 아따우알빠란 잉까의 왕을 죽

고 이해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다가 갑자기 그들의 만행을 고발하기도 한다. 한 예로, 스페인인들이 악행을 저지른 이유는 금이 그들의 감각을 눈멀게 했기 때문이라고 말하다 갑자기 그들은 결코 진실을 말하는 법이 없었다고 비난한다. 즉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언제나 타인에게 전가하였으며 항상 딴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또한 거짓 증언과 매수를 일삼았으며 질투심이나 탐욕으로 보복을 자행하였다(334)고 한다.

이고 난 후 필리삐요란 원주민이 거짓 밀고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어이없게도 알마그로(Almagro)가 필리삐요를 처형하기 직전 이 원주민 통역이 자신의 밀고가 거짓이었다고 자백한 것이다.(235)

로뻬쓰의 작품에 등장하는 인디아스의 잔연환경과 풍습도 다양하다. 그는 주로 자신이 보기에 특이해 보이는 곤충이나 동물과 식물 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으며, 인디오들의 일상적인 관습과 기이한 관습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에스빠뇰라 섬에서 발견된 크기가 무려 3센티미터나 되는 개똥벌레(cocuyo)는 모기를 잡는데 이용되기도 하고(67) 벼룩의 일종인 니구아(nigua)는 발톱과 발가락 사이로 파고들어 스페인 병사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혔으며,(67~8) 마나띠(manatí)란 물고기는 크기가 5미터 정도에 이르는데 두 발로 헤엄을 친다.(67) 그리고 앞에서 언급한적 있는 꾸마나의 박쥐는 무척 크기도 하지만 한번은 한 환자의 복사뼈 부분을 물었는데 이 때문에 그 환자의 병이 낫기도 하여 가톨릭사제들이 이를 기적으로 여기기도 했다.(152) 그리고 이러한 것들 외에도 빠빠가요(papagayo)나 까빠(capa), 아라나따(aranata), 사슴, 사자, 척추에 배꼽이 있는 돼지와 닮은 이상한 동물,(354) 크기가 7미터가 넘고 엄청난 힘으로 배까지 뒤집을 수 있는 물고기(151) 등 다양한 것들이 있다.

인디오들의 풍습과 관련한 로뻬쓰의 기록에도 흥미로운 것들이 상당히 많다. 장례의 풍습과 관련한 예를 들면, 빨마스강 유역의 인디오들은 자식이 죽었을 경우 숯검정을 몸에 바르고 슬피 울며 아이를 매장하고 1년의 상을 지내는데 온 마을이 하루에 세 번 운다. 그리고 부모도 친척들도 이 기간 동안은 씻지 않는다. 그러나 노인이 죽으면 울지 않고 그의 소유였던 모든 것들을 매장하는데 시체는 화장하며 태우는 동안 춤을 추고 노래한다. 뼈는 가루로 만들어 1년이 되면 친척들과 여자들이 나누어 마신다.(87) 치꼬라(Chicora) 지역의 인디오들은 족장이 죽으면 마

치 육체에서 영혼이 막 나갔음을 상징하듯 폭죽 같은 불꽃을 피우고 슬피 울며 매장한다. 매장하기 이전 죽은 족장의 코에 손을 대고 바람을 불며 시체의 이마에서부터 뒤통수까지 사지를 쓰다듬는데 이때 죽은 족장의 시체가 만약 좋다고 느끼면 머리를 왼쪽 어깨 쪽으로 튼다. 그러면 의식을 행하는 사람들은 죽은 족장이 호의를 베풀 것이라고 믿는다.(82) 로뻬쓰는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알려진 공놀이 외에도 우리의 팽이놀이와 유사한 놀이와 화살을 바구니에 넣는 놀이를 소개하고 있다.(82)

꾸마나 지역의 인디오들은 턱수염이 나면 뽑아버리는데 이는 수염이 난 사람을 짐승으로 여기기 때문이며, 남자들은 이빨을 고추의 잎으로 검게 물들이는데 이는 이빨이 흰 사람들을 여자처럼 여기기 때문이다.(149) 결혼의 풍습은 딸의 경우 결혼시키기 전 2년 동안 못나가게 가두어 두며 이 기간 동안은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다. 결혼식에는 친척들과 이웃과 친구들을 초대하며 초대받은 여자들은 음식을 가져오고 남자들은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목재와 짚 등 필요한 것을 가져오며 남자들과 여자들이 나뉘어 각각 신랑과 신부에게 춤추고 노래해준다. 이러한 가무가 끝난 뒤 신랑신부의 머리카락을 뒤는 그대로 두고 앞만 조금 자르며 밤이 되면 이들을 한 방에 들여보낸다. 이 지방의 귀족들과 부유한 남자들은 원하는 만큼 여자를 가질 수 있으며 손님이 집에 찾아오면 가장 아름다운 부인을 손님에게 내준다. 유부녀들은 매우 정절을 잘 지키는데 음탕한 짓을 저지르면 이혼을 요구할 수 있다.(150)

니까라구아(Nicaragua) 지방은 결혼식장에서 사제가 새끼손가락으로 신랑신부의 손을 잡고 의식을 진행한 뒤 한 방에 넣어주는데 처녀가 아니면 신랑은 족장에게 파혼을 신청할 수 있고 두 번 결혼한 경우 추방된다. 그리고 비록 다처제이나 한 여자만 합법적인 부인이 된다.(355) 로뻬쓰는 이 지역의 여자들에 대해 갑자기 별다른 설명 없이 결혼 전에는 모

두 나쁘지만 결혼 후에는 좋은 여자들이 된다(355)고 말한다.

일상적인 생활양식의 예들을 보면, 유까딴(Yucatán) 지역에선 돌로 된 건물과 목화로 만든 셔츠를 입은 사람들을 볼 수 있으며, 놋쇠와 몽둥이로 된 십자가가 발견되었는데 로드리고(Rodrigo)왕 시절 모로족을 피해 스페인인들이 왔을 것이라는 설이 있지만 자신은 이를 믿지 않는다(97)고 한다. 다리엔 지역의 원주민들은 음식을 많이 먹지 않고 술은 있지만 족장들만 마시며 목화로 짠 옷을 입고 자주 목욕을 하며 매우 깨끗이 다닌다.(125) 삐싸로가 들어간 초기 지역의 원주민들은 강이나 습지에서 나무 위에 집을 짓고 살며 매우 호전적으로 스페인 병사들을 보자 모욕하였으며 머리는 앞뒤는 자르고 옆은 기르고 있었다. 얼굴의 곳곳에 구멍을 뚫어 보석을 끼고 있어 탐이 났지만 너무 수가 많아 엄두를 내지 못했다(199~201)고 한다. 꾸마나 지역에서는 베개 두 개로 머리를 눌러 납작하게 해 다니며 폭식을 하지 않고 식량도 풍부한데 이상한 벌레들을 먹는 풍습을 가지고 있다.(151) 그런데 니까라구아 지역의 원주민들은 희한하게 여자들이 잔뜩 치장을 하고 시장에 나가며 남자들은 집을 치우고 불을 지피며 실을 잣는 등 집안일을 본다. 또한 남자들이 쪼그려 앉아 오줌을 누고 여자들은 서서 오줌을 눈다(355)고 기술하고 있다.

로뻬쓰가 묘사하는 원주민들의 의술은 자연의 약재를 이용하는 모습이다. 구아이(guahi)란 풀은 콜레라를 치료하는데 쓰이고(80~1) 구아야깐(guayacán)이란 나무는 가래톳을 치료하는데 쓰이며(66), 하루마(jaruma)란 나무의 과일은 지렁이나 구더기처럼 생겼지만 맛이 있고 부스럼에 액을 바르면 낫는데 한 번은 두 스페인 병사가 싸워 한 명이 칼로 상대방의 팔을 잘랐지만 한 노파가 뼈를 바루고는 이 과일의 즙과 잎만으로 치료했다(78)고 한다. 그리고 상처가 곪아 썩은 곳은 절개하여 빨아내는 치료법을 사용한다고 설명하며, 우리나라의 뜸과 같은 보똔네스 데 푸에

고(botones de fuego)란 치료법도 소개한다.(87) 에스빠뇰라 섬의 치료사들은 치료행위를 할 때 꼬오바(cohoba)란 풀을 씹는데 치료하다 환자가 죽으면 스페인 의사가 그러하듯 다 핑계가 있다(63~4)고 한다.

3. 정치

프란씨스꼬 로뻬쓰 데 고마라의 글에 나타난 족장 혹은 왕의 권력은 절대적인 모습을 보인다. 잉까의 신하들은 왕궁에 들어갈 땐 신발을 벗고 눈을 내리깔아 감히 왕의 얼굴을 쳐다보지 못했다.(220) 이러한 절대권력에 대한 복종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스페인 병사들이 자신의 왕을 사로잡는데도 아따우알빠의 병사들은 공격하지 않았는데, 로뻬쓰의 추측에 의하면, 그 이유는 아마도 왕이 공격을 명령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을 것이라(211)고 한다. 또한 아따우알빠가 길을 나서면 시동들이 길을 청소하고 노래와 춤을 추며 앞장섰다(209).

오늘날 콜롬비아 지역에 있었던 보고따(Bogotá) 왕도 마찬가지로 절대적 공경을 받았다. 그의 신하들은 그를 마치 신처럼 숭배하였는데 그가 침을 뱉으면 목화 천으로 이를 받아내었다. 이것은 신성한 무엇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한다(139). 에스빠뇰라 섬에서도 잉까의 왕과 보고따 왕 못지않게 족장의 권한은 절대적이었는데 족장이 허락하지 않는 한 부족들은 사냥도 고기잡이도 하지 않았다(65)고 한다. 또한 니까라구아 지역의 '자유도시(beheteria)'라고 불리는 마을들에서는 부족 구성원들이 족장을 살해하는 경우가 없으므로 그들의 형벌조항 가운데 족장 살해와 관련한 조항은 아예 없다(356)고 한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족장의 허락이 없이도 구성원들에게 명령하고 형벌을 가할 수 있는 총대장을 주민들이 선출한다는 사실이다(356).

사회 통치적 질서 측면에서 보면, 보고따 왕이 다스리는 곳은 죄를 지

으면 채찍질을 가하거나 귀나 코를 자르고 그 죄가 클 경우 교수형에 처하기도 한다(139). 그러나 죄를 범한 사람이 귀족인 경우는 머리카락을 자르거나 남방의 소매를 찢어 모멸감을 주는 정도이며, 권력과 부를 아들이 아니라 동생이나 조카에게 승계함이 특징적이다(139). 또한 까르따헤나(Cartagena)와 치미따오(Chimitao) 지역에서는 여자들도 전투에 참여한다.(135) 에스빠뇰라 섬과 지금의 콜롬비아 지역 등 대부분의 지역에서 나타난 원주민들의 가장 큰 범죄는 탐욕과 도둑질이다. 따라서 에스빠뇰라 섬에선 도둑을 가장 큰 벌인 사형에 처하며(65), 다리엔(Darien) 지역에서는 옥수수를 훔치면 팔을 잘라 목에 걸게 만든다(132). 또한 꾸쓰꼬 지역에선 도둑은 눈을 뽑아버리며, 니까라구아 지역에선 도둑의 머리카락을 자른 뒤 훔친 것을 배상하기 전까지 물건의 주인에게 노예로 준다(356). 그리고 이들의 재판과정은 매우 공정하다. 다리엔 지역에선 재판을 3일에 걸쳐 진행하며 집행관은 따로 있다(132). 꾸쓰꼬 지역에서도 재판과 관련하여서는 매우 공정한 정의를 지킨다고 로뻬쓰는 강조하고 있다(225). 한편 범죄들과 관련한 엄격하고 공정한 재판 이전에 이들 사회에는 구성원들이 법질서를 지킬 수 있도록 오늘날의 경찰과 같은 사람들이 있어 이들이 가게나 건물 등을 지킨다(354).

4. 문화

프란씨스꼬 로뻬쓰 데 고마라의 작품은 다양한 지역에 대해 다루다보니 생활문화와 관련된 이야기들도 매우 다양하게 소개한다. 의복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에스빠뇰라 섬 주민들은 더위로 인해 나체로 다녔지만(64) 대륙으로 들어가면 유까딴 반도에서부터 원주민들은 모포 형태의 옷이나 셔츠 등 화려한 색의 옷을 입고 다닌다(97). 또한 깃털 장식, 금이나 은으로 된 흰색이나 여러 색의 귀걸이 등 다양한 장신구들을 하고

다니다(97). 빠나마 지역에 있는 까스띠야 데 오로(Castilla de Oro)의 일반 남성들은 천 조각으로 음부를 가리는 정도이나 귀족과 왕실의 신하와 여자들은 무명으로 짠 옷을 입고 매일 자주 목욕을 하므로 매우 깨끗하게 다니고(125), 온두라스의 사람들 또한 까스띠야 데 오로의 사람들과 유사한 복장을 하고 있다(101). 할리스꼬(Jalisco) 지방 근교의 치아메뜰란(Chiametlán)의 여자들은 발까지 덮이는 옷을 입고 남자들은 짧은 모포를 걸치고 가죽신을 신는다(365). 한편 시볼라(Sibola)의 사람들은 가죽신을 신는데 겨울엔 무릎까지 오는 오늘날의 부츠와 비슷한 장화를 신고 여자들은 발까지 오는 메딸(metal)을 입는다(367). 그리고 칠레 지역에선 바다사자의 가죽으로 옷을 해 입고 다니는 원주민들도 있다(233). 뻬루(Perú)의 경우 평원 지대 사람들은 옷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였지만(337) 산악 지대 남자들은 머리에 묶는 끈이 달린 양모의 셔츠를 입고 여자들은 소매가 없는 긴 옷을 입는데 금과 은으로 된 머리가 큰 브로치로 맨 어깨 숄을 걸치고 띠를 많이 두르고 다닌다(338).

음식과 관련하여서도 로뻬쓰는 다양한 것들을 소개한다. 이들 다양한 음식들 가운데서도 당연 가장 중요한 음식은 역시 옥수수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지속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식인과 관련된 이야기이다. 초기 스페인 정복자들이 주로 언급한 식인종들은 까리베(Caribe)라고 불리는 사람들인데 이들은 지금의 카리브해안에 거주하는 부족으로 다른 부족들을 잡아먹는 것으로 유명하였다. 로뻬쓰에 의하면 이들 까리베들은 주로 아이아이(Aiay)의 사람들을 잡아먹는데 알론소 데 오헤다가 이 사실을 발견하였다(55). 그리고 스페인 정복자들에게 있어서 유명한 식인 사건은 플로리다에서 있었던 것으로 가톨릭 사제들을 원주민들이 잡아먹은 사건이다. 스페인 왕실은 1549년 몇 명의 사제들을 플로리다에 파견하였는데 설교하러 도착한 이들을 원주민들이 잡아먹고는 자신들의 사원에

잡아먹힌 가톨릭 사제들의 머리 가죽을 걸어놓았던 것이다(85). 또한 산따 마르따(Santa Marta) 지역에선 아이들에게 사람의 고기를 먹는 것을 가르치는데 로뻬쓰는 이들이 까리베라고 주장한다(138). 그리고 꾸쓰꼬의 원주민들은 고기와 생선을 날로 먹으며(225) 뻬루의 평원 지대 사람들도 생선을 날로 먹는 풍습이 있고(336), 지금의 북미 지역에 속하는 씨꾸익(Cicuic)에서 끼비라(Quivira)까지 이르는 지역에서는 소의 지방을 먹기도 하며 또한 소의 뜨거운 피를 마시기도 한다(369).

하지만 옥수수로 만든 빵이 원주민들의 가장 주된 식량이므로 로뻬쓰는 "옥수수와 고추만 있으면 사람과 말이 살찐다."고 말한 당시 스페인 사람들의 말을 인용한다(372). 원주민들은 옥수수로 빵과 술을 만들며 옥수수는 악천후에도 잘 자라고 동물로부터 피해도 적으며 밀 빵보다 영양가도 높다(372). 게다가 옥수수는 한 알을 심으면 적게는 200배 많게는 1,200배를 수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371) 4개월이면 수확하는데 논에선 심지어 1개월 반이면 가능하다(371). 또한 옥수수 가루는 썩은 물을 정화시키는데 썩은 물의 악취와 나쁜 맛을 제거시키기 때문에 바닷물에 좋다(372).

이상에서 언급한 것들 외에 로뻬쓰의 책에 기록된 다양한 음식물들을 보면, 유까딴에선 많은 벌집을 키워 꿀을 채취하고(97) 치꼬라 지역에선 사슴을 사육하며(82) 뻬루의 산악 지역에선 많은 목축 떼를 농장에서 키운다(338). 또한 옥수수로 만든 빵뿐만이 아니라 유까(yuca)와 아히(ají) 그리고 빠빠(papa)로 만든 빵도 있고(372), 뻬루의 산악 지역에서는 꼬까(coca)가 매우 귀중한 것으로 금보다 오히려 귀하게 여겨진다(336). 술은 여러 가지 과일과 풀로 만드나(66) 다리엔 지역에선 족장들만 즐기는 반면 꾸마나 지역 사람들은 유럽인들의 바커스 축제 같은 것을 즐기는데 무려 8일 동안 술 마시고 춤추며 즐기기도 한다(154). 또한 이곳에선 술

을 많이 마시는 것을 높이 평가하므로 마시기 위해 토하고 다시 마시기도 한다(155). 그러나 지금의 콜롬비아에 속하는 보고따 족장의 지역에선 기독교인들의 사순절 같이 1년에 2개월 동안은 금식하며 심지어 소금도 먹지 않는다(139). 한편 까베싸 데 바까가 들어갔던 지역인 빨마스강 유역에는 매우 흰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 있었는데 이들은 모두 애꾸이거나 장님들로 특이한 것은 여자들이 모두 술 중독이었다(89). 그리고 콜롬비아의 떼네수차(Tenesucha)란 지방 사람들은 먹기 위해 개미를 키우는 특이한 풍습을 가지고 있었고(140), 플로리다 지역 근처에서는 숯을 먹는 사람들도 발견되었다(155).

원주민들의 집과 관련한 글은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데 발보아가 갔던 지역에서 발견된 나무 위에 지은 집들이 특이한 것으로 기록되어져 있다. 아비베이바강 주민들은 높은 나무 위에 집을 짓고 사는데 그 나무의 둘레가 8명이 둘러설 정도로 굵다. 그러나 이러한 집들을 보고 스페인 병사들은 마치 황새나 까치와 이웃하는 것 같다고 비웃기도 하였다.(115) 반면 도르래나 기중기도 없이 쌓아 올린 꾸쓰꼬의 튼튼하고 아름다운 요새들에 대해서는 감탄을 금치 못한다(339). 또한 끼또(Quito)에서 꾸쓰꼬까지 두 개의 훌륭한 길이 있는데 하나는 평원으로 하나는 산맥으로 나 있으며, 평원으로 난 길은 길이가 무려 3,900킬로미터 이상으로 폭은 25보에 이르고 길 양쪽으로 담이 있고 그 옆으로 수로가 있다. 산맥으로 난 길은 언덕은 깎고 계곡은 메워 돌과 바위와 석회로 건설하였고 이 길의 폭도 25보 정도이며 길을 따라 일정하게 땀보(tambo)라고 불리는 휴식처가 있어 잠을 잘 수도 있다. 로뻬쓰는 이 잉까의 길은 이집트의 피라미드나 로마의 길보다 훌륭하고 놀랍다고 감탄한다(340).

다양한 생활문화들 가운데 가장 손꼽히는 것은 단연 노래와 춤의 문화로 보인다. 치꼬라의 사제들은 신들을 위한 노래를 부르고(82) 하구아

쓰(Jaguaz) 사람들은 배가 고파도 즐겁게 노래하고 춤추며 즐기는데(88) 이는 에스빠뇰라 섬에서부터 익히 보았던 것이다. 이들은 아레이또란 춤과 노래를 즐기는데 꽃과 더불어 다양한 장식을 하기도 한다(64~5). 또한 꾸마나에선 무려 스무 가지의 색으로 칠하곤 손을 잡거나 놓고 앞뒤로 움직이는 매우 조화된 리듬의 춤을 즐기는데 6시간을 쉬지 않고 즐길 때도 있으며 술과 마찬가지로 춤도 오래 추는 사람을 높게 평가한다(154~5). 이렇게 술 마시며 춤추고 즐기는데 8일을 소모할 때도 있을 정도로 매우 흥이 있지만 또한 여인들이 슬픈 곡조의 노래를 부르기도 한다(155). 잉까인들이 사용한 매듭 문자를 로뻬쓰는 소개하고 있는데 그는 잉까인들이 돌이나 색깔 있는 끈의 매듭으로 수를 표시하는데 매우 정확하여 놀랍다(341)고 말한다. 또한 끼뿌(quipu)와 마찬가지로 아마떼(amate)에 대한 용어를 직접 언급하진 않지만 종이와 양피지 책에 그림으로 된 문자를 사용하고 있음을 설명한다.[15] 이 종이 책은 한 뼘 넓이에 길이는 열두 뼘으로 접을 수 있으며, 파란색과 자주색 등 여러 색들로 중요한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고 법률이나 의식들도 기록하고 있는데 니까라구아 지역과 메히꼬 지역이 매우 유사하다(357). 따라서 정복의 초기부터 원주민들이 편지가 말한다고 생각한 것(72)은 매우 당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로뻬쓰의 책에 등장하는 이상향은 플라톤의 글에 등장한 여인의 왕국과 주로 관련된 것이다. 지금의 바하마군도에 있는 섬들은 당시엔 루까요스(Lucayos)라 불렸는데 이 섬들에 아마쏘나스(amazonas)가 있고 늙은 사람을 젊게 만드는 샘이 있다는 전설이 있었음을 소개한다(77). 그리고 이곳의 원주민들은 매우 희고 세련되었는데 특히 여자들이 그러하다고 한다(77). 이 전설에 루이스 뽄쎄(Luis Ponce)가 그 샘이 있다는 보유까

15) 꼬르떼스는 그림뿐만이 아니라 문자도 언급한다. Hernán Cortés(2005), Cartas de Relación, 88.

(Boyuca) 섬을 찾아 나섰다가 1512년 플로리다를 발견한 것이다(84). 이후에도 전설의 아마쏘나스를 발견하기 위해 프란씨스꼬 데 오레야나(Francisco de Orellana)를 대장으로 한 원정대가 모험에 나섰지만 결국 실패했다. 따라서 로뻬쓰는 자신은 여인의 왕국을 믿지 않는다고 말한다(162). 그러나 또 다시 로뻬쓰는 레우첸 골마(Leuchen Golma)라는 한 영주의 이상향의 섬과 그 앞에 있는 아마쏘나스에 대해 말한다. 이 영주는 섬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 섬에는 2천 명의 사제가 있는 큰 사원이 있고 정원의 나무도 금으로 되어 있을 정도로 금이 많으며 이 섬 앞에는 아마쏘나스가 있고 그곳의 여왕은 "황금 하늘"을 뜻하는 구아노미야(Guanomilla)라 불린다. 그러나 그 땅은 북위 40도에 위치하고 있고 금이 많을 것이라고 사람들이 말하지만 아무도 보지 못했기에 로뻬쓰 자신이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 하고 반문한다(248).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뻬쓰는 식자로서의 자신을 과시하고 자신이 한 말이 전혀 근거가 없지는 않음을 보여주기 위해 플라톤이 말한 사라진 아틀란티스 섬과(378) 세네까(Seneca)가 "메데아(Medea)"라는 극작품에서 말한 것을 직접 인용한다(377).[16]

Ⅲ. 나가는 말

지금까지 살펴본 인디오와 그들과 관련한 것들의 이미지는 매우 다양하였다. 종교 분야에서는 가톨릭 사제인 로뻬쓰의 종교에 대한 시각이

16) 작품 377쪽에서 로뻬쓰는 세네까가 작품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한다. "지금부터 많은 세월 뒤 대양이 사물들의 연결을 느슨하게 할 세기가 올 것이며 커다란 땅이 나타날 것이고 띠피스(Tifis)가 새로운 세상을 발견할 것이다. 그리하여 띨레(Tile)가 지구의 끝이 아니리라."

오히려 역설적으로 매우 미신적이었다. 로빼쓰는 기독교의 우월성을 강조하기 위해 원주민들이 믿고 있는 신들은 모두 악마이며 우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강조하였으며, 인디오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인 이야기를 종교적 기적과 다소 황당한 일화로 소개했다.

경제·사회 분야에서 살펴보면, 먼저 물질적 부유함에 대해 로빼쓰는 어디서 본 자료에 근거하는지는 몰라도 종종 구체적인 수치로 언급하였으며 다분히 과장적이었는데 그의 이 과장스러운 기록은 사람들과 관련하여서도 마찬가지였다. 로빼쓰의 책에 등장하는 인디오들은 약한 모습과 강한 모습을 동시에 보였지만 결국 모두 스페인 병사들에게 힘없이 무너지는 허약한 모습에 불과했다. 인디오들은 대체적으로 스페인 병사들에게 먹을 것을 공짜로 주고 거주할 수 있도록 집도 지어주며 노예처럼 온순하게 다니는 모습이 보통이었다. 다만 이렇게 순종적임에도 불구하고 스페인 병사들의 너무나 가혹하고 잔혹한 혹사에 못 이겨 때론 반란을 일으키고 스페인인들을 죽이는 모습도 보였다. 한편으로 로빼쓰의 작품에 등장하는 인디아스의 잔연환경과 풍습은 매우 다양하였으며, 장례식 풍습, 놀이문화, 결혼식 풍습 등 흥미로운 것들도 상당히 많았다. 그리고 로빼쓰가 묘사하는 원주민들의 의술은 자연의 약재를 이용하거나 절개하여 치료하는 매우 과학적인 모습이었다.

정치 분야에서 로빼쓰의 글에 나타난 족장 혹은 왕의 권력은 절대적인 모습이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니까라구아 지역의 '자유도시'에 대한 이야기에서 볼 수 있듯이 매우 민주적인 선출 제도도 있었다. 사회 통치적 질서 측면에서 보면, 대부분의 지역에서 가장 큰 범죄는 탐욕과 도둑질이었다. 따라서 에스빠뇰라 섬에선 도둑을 가장 큰 벌인 사형에 처했고 이들의 재판과정은 매우 공정하였다. 한편 엄격하고 공정한 재판 이전에 이들 사회에는 구성원들이 법질서를 지킬 수 있도록 치안제도를

매우 효율적으로 운영하였다.

문화 분야에서 살펴보면, 의복과 관련하여서는 비교적 언급이 적었지만 음식과 관련하여서는 다양한 것들을 소개하였는데 “옥수수와 고추만 있으면 사람과 말이 살찐다.”는 당시 스페인 사람들의 말을 직접 인용할 정도로 당연 가장 중요한 음식은 역시 옥수수였다. 옥수수 외에 꿀, 유까, 아히, 빠빠, 꼬까 등의 식용작물들과 식육개미나 숯 등 특이한 것도 소개하였다. 집과 관련한 글은 상대적으로 매우 적었는데 발보아가 갔던 지역에서 발견된 나무 위에 지은 집들이 특이한 것으로 기록되어져 있다. 반면 도르래나 기중기도 없이 쌓아 올린 꾸쓰꼬의 튼튼하고 아름다운 요새들과 두 개의 도로에 대해서는 감탄을 금치 못하였다. 다양한 생활문화들 가운데 가장 손꼽히는 것은 단연 노래와 춤이었다. 또한 잉까인들이 사용한 매듭 문자를 소개하였는데 돌이나 색깔 있는 끈의 매듭으로 수를 표시하지만 매우 정확하여 놀랍다고 하였다. 끼뿌와 마찬가지로 아마떼에 대해서도 소개하였는데 종이와 양피지 책에 그림으로 된 문자를 사용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로뻬쓰의 책에 등장하는 이상향은 플라톤의 글에 등장한 여인의 왕국과 주로 관련된 것이었다. 여인의 왕국 외에도 늙은 사람을 젊게 만드는 샘과 관련한 사건을 소개하였다.

참고문헌

마르코 폴로(2005),『동방견문록』(기호동 역), 서울: 사계절.

바르똘로메 데 라스 까사스(2007),『인디아스 파괴에 관한 간략한 보고서』(최권준 역), 서울: 북스페인.

알바르 누녜쓰 까베싸 데 바까(2004),『조난일기』(송상기 역), 서울: 고려대학교출판사.

에르난 꼬르떼스(2009), 『코르테스의 멕시코 제국 정복기 1,2』(김원중 역), 서울: 나남.

이용선(2001), 『아메리카 파괴에 관한 간략한 보고서』에 나타난 흑색 전설의 상징성 연구」, 서어서문연구, 19권, pp.497-515.

최권준(2007), 「꼴론의 『항해일지』와 꼬르떼스의 『보고서』에 나타난 그럴듯한 진실」, 스페인어문학, 43호, pp.379-403.

_____(2008), 「프란씨스꼬 로뻬스 데 고마라의 『인디아스 역사』에 나타난 그럴듯한 진실」, 스페인어문학, 46호, pp.313-331.

_____(2009), 「베르날 디아쓰 델 까스띨료의 『멕시코 정복의 진실사』에 나타난 그럴듯한 진실」, 스페인어문학, 52호, pp.217-234.

최미경(2004), 「잉카 가르실라소 데 라 베가와 인디오 세계의 정신적 문화의 의미」, 스페인어문학, 31호, pp.311-326.

크리스토프 콜럼버스(2001), 『콜럼버스 항해록』(박광순 역), 서울: 범우사.

Casas, Bartolomé de las(2006), *Brevísima relación de la destrucción de las Indias,* Barcelona: Linkgua.

Colón, Cristóbal(2003), *Diario de a Bordo,* Luis Arranz Márquez(ed.), Madrid: Dastin.

Cortés, Hernán(2005), *Cartas de Relación,* México: Tomo.

Díaz del Castillo, Bernal(1988), *Historia verdadera de la conquista de la Nueva España,* 4ª ed., 2 tomos, Madrid: Historia 16

Fuentes, Carlos(1990), *Valiente mundo nuevo: época, utopía y mito en la novela hispanoamericana,* Madrid: Narrativa Mondadori.

Gerbi, Antonello(1946), *Viajes polémicas sobre el nuevo mundo: En el umbral de una conciencia americana,* Lima: Banco de Crédito del

Perú.

Humboldt, Alejandro de(1978), *Ensayo político sobre el reino de la Nueva España,* México: Compañía General de Ediciones.

León-Portilla, Miguel(ed.)(2006), *Visïon de los vencidos,* México: UNAM.

Lezama Lima, José(1986), "Imagen de América Latina", en César Fernández Moreno(ed.), *América Latina en su literatura,* México: Siglo XXI, 462-468.

López de Gómara, Francisco(2006), *Historia general de las Indias,* Barcelona: Linkgua.

Lozano, Jorge(1994), *El discurso histórico,* Madrid: Alianza.

Todorov, Tzvetan(1992), *La Conquista de América: El problema del otro,* México: Silgo XXI.

_____(1993), *Las morales de la historia,* Barcelona: Paidós Ibérica.

Zea, Leopoldo(1993), *Fuentes de la cultura latinoamericana,* México: Fonde de Cultura Económica.

http://www.artehistoria.jcyl.es/cronicas/personajes/5778.htm

▌논문투고일자: 2010년 10월 30일
▌심사완료일자: 2010년 12월 6일
▌게재확정일자: 2010년 12월 10일